

『희망』으로 바꾸는 ‘릴레이 베틀시장’

- 지속가능발전 「우리 서로 그리워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의 학문적 고찰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담론적 성격으로 접근할 것을 학자들은 권한다. 그저 UN 단위의 의제 설정, 전략 및 이행계획과 같은 식으로 접근한다면 행정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서울 도봉구는 서울시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변방으로 분류되는 자치구다. 베드타운이라는 성격 규정이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25개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 인데도 이렇다 할 산업시설도 없고 오죽하면 백화점도 그 흔한 상영관(극장)도 없음에랴. 하지만 이곳에 ‘사람’이 있었다. ‘공동체’가 숨 쉬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 소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2층
지속가능발전추진반

전 화 02-2091-2564

팩 스 02-2091-6257

이메일 bbol0205@dobong.go.kr



지속가능발전, “꿈틀대는 공동체”

- 민간주도, 행정지원”벼룩시장“으로 활짝

도봉구 창5동 소규모 마을민간단체에서 출발한 작은 벼룩시장은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하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가까운 내 집 앞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면 좋을 텐데...”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구청에 전달되면서 급기야 14개 행정동 모두에서 민간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별 릴레이 벼룩시장이 개장되기 시작한다.

‘먼 사촌이 이웃사촌만 못하더라.’라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 간 왕래가 없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절이지만, 동네 벼룩시장에서 만나서 같은 동네주민으로서 공감대를 느끼고 친구를 만들고, 오고가는 대화 속에 서서히 함께 숨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태동으로 인해 물물교환이나 물품판매라는 순수기능뿐만 아니라 놀거리, 볼거리를 더해 재미난 장터로 거듭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

안전, 홍보, 교통 등 다양한 요소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새싹이 돋아난 텃밭에,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은 적당한 수분의 공급, 잡초 제거, 거름공급 등 새싹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릴레이 벼룩시장’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다. 우후죽순, 산발적 행사를 조직화된 마을벼룩장터로 뒷받침해주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마을사랑으로 ‘릴레이 벼룩시장’을 꽃피우게 된 것이다.



장터는 ‘환경-성장-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현의 ‘지속가능발전’ 교과서

「희망」으로 바꾸는 ‘릴레이 벼룩시장’의 기원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벼룩시장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행사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의 작은 팁(tip)이 있었다. 산발적 행사를 지속가능하게, 행정적 행사 위주에서 주민의 자발적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산 교육장이 됨은 물론 장터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고루 퍼지는 ‘환경-성장-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안성맞춤으로 구현하는 살아있는 ‘지속가능발전’ 교과서로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도봉구 행정동 14개 마을에서 마을별 민간중심의 ‘릴레이벼룩시장 추진위원회’가 자체 모집, 결성되었다.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주민의 자발성과

거버넌스 기구가 추동하며, 순수 민간주도의 장터운영을 바꿀 수 없는 ‘룰’로 삼은 것이다.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 동별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

각 동별 ‘텔레이벼룩시장 추진위원회’는 동 자원봉사캠프, 주민자치위원회, 동 복지위원회, 지역 학교, 아파트봉사단, 사회적 기업, 순수민간단체, NGO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로 꾸려졌고, 참여주체의 다양성은 곧 다양한 벼룩시장 기획으로 이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곳, 반기/분기별로 운영하는 곳, 마을공원, 공터, 학교운동장, 하천 둔치에서 개최하는 곳, 개최를 보도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별도로 조성 축제형식을 빌어 운영하는 곳 등 그야말로 민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자발성의 ‘구름 떼 장터’가 되고 만 것이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창2동에서는 ‘벚꽃축제&행복나눔 장터’를, 만화영화 돌리의 주인공이 살았던 쌍문3동에서는 ‘돌리장터’를, 창3동에서는 경로의 달인 10월을 주제로 ‘효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하였으며,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 댄스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벼룩시장은 더욱 풍부해졌고, 주민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곳에선 무엇을 팔고 있을까?! 친환경 수세미가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고소한 ‘치킨’ 냄새가 진동하는 ‘환경비누’, 플래카드로 만든 장바구니는 단골메뉴다. 친환경 모기 퇴치제, 폐 장갑으로 만든 인형, EM 흙공과 세제는 인기품목. 게다가 장터에 먹거리가 빠지면 재미없다. 빈대떡에서 떡볶이, 소시지 구이, 팝콘, 국수, 심지어 자장면까지. 방학2동 ‘골목대장터’에서 장이 열릴 때마다 장터에 모인 주민 모두가 ‘50미

도봉1동 희망장터(벼룩시장)개장 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동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치유는 물론, 마을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아끼는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박하고 건강한 소통같은 축제형식으로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희망장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주관할 도봉1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희망장터(벼룩시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위원으로 모시기 위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4. 7. 17. ~ 7. 28.(토, 일요일 제외)
2. 모집인원 : 10명 내외
3.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doc2me@dobong.go.kr)
4. 신청자격 및 위촉방법 : 도봉1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희망장터(벼룩시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역 할 : 희망장터(벼룩시장)개장을 위한 전반사항 결정 및 추진
6. 신청서류 : 일반 이력서(사진첨부) 1부.
7. 문의전화 : 동주민센터 희망장터(벼룩시장) 업무 담당 (☎2091-5807)

2014. 7.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1동장

벼룩시장 추진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벼룩시장 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제17회 들리장터

제17회 들리장터(쌍문3동)로 놀러오세요!

- 일시 : 2014. 10. 18.(토) 11:00 ~ 16:00
- 장소 : 신도림중학교 운동장
- 내용 : 벼룩시장, 공연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 주최 : 쌍문3동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쓰고 나누는 벼룩시장 축제

소박하고 건강한 소풍 같은 축제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마을공동체의 장으로써 나눔을 실천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있는 경로잔치

물안방울을 통한 다양한 정서교육의 기회제공,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간단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체험과 먹거리 가득한 신나고 즐거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정입니다.

벼룩시장에 참여하려면?

- 참여대상 : 참여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신청, 개별면 회)
- 신청기간 : 2014. 9. 15. ~ 10. 17.
- 신청방법 : 1305자원봉사포털(www.1305.go.kr), 쌍문3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 취급종류 : 중고음반/도서, 의류, 악류용, 교구, 유아용품 기타 생활용품 등
- 참 여 비 : 무료(소식지 발송 자료 시 사면부사제 5천 원정액)
- 본 회 : 쌍문3동주민센터 ☎2091-5554
- ※ 주민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터' 짜리 초대형 김밥을 함께 마는 화합의 장터를 연출할 때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기네스북에 실려야 하지 않을까?

어디 그뿐이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연이 흥을 돋운다. 아이들의 벨리댄스, 통기타를 메고 온 청년의 구성진 K-pop, 마을센터에서 배운 스포츠 댄스에 태권도시범, 마을 '은방울 자매'의 간드러진 트로트는 장터를 웃음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놀이가 빠질 수 없다. 비눗방울놀이, 재기차기,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그야말로 아이들의 놀이터다.

1만여 주민 참여 벼룩시장 주민 스스로 만들어

결과를 평가하며 '릴레이 벼룩시장'은 진화를 거듭했다. 무엇보다 이웃마을에서 열리는 장터를 손쉽게 찾게 되고, 부럽고 좋은 프로그램을 자신의 마을장터에 바로 적용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민간의 창의성은 '벼룩시장'을 '마을 축제'로 승화시켜갔다.

창2동 사례다. 구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설정했다. 거기에 서울에서 유명한 우이천 벚꽃을 테마로 축제와 접목, 순식간에 지역의 대표적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마을단위의 행사에 매년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다는 사실에 주민 스스로가 놀랐다.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가 그 시작이었다. 언제 할 것이며, 어디서 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했고, 장터는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됐다. 행정기관의 협조로 '차 없는 거리'가 정해지고 모범운전자회는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줬다. 운영은 자원봉사자의 몫이었다. 안내며 장터꾸리기, 청소까지 그냥 주민들의 '작지만 매운 손'이었다.

초안산마을 행복축제

창3동 孝(효) 축제

일시 : 2014. 10. 25.(토) 11:00 ~ 16:00
(개막식 12:00)

장소 : 신화초등학교 (*우천시에는 청동골목시장)

행 사내용 : 경로위안잔치, 벼룩시장, 공연마당, 노래자랑, 먹거리마당 등

※ 벼룩시장 참가신청 : 창3동주민센터 (☎2091-5735)

창3동벼룩시장추진위원회 & 창3동주민자치위원회

벼룩시장 홍보 안내문

'착한변화' 를 위한 노력, 순수함을 지켜내다!

벼룩시장이 활성화되다보니 예기치 못한 잡음도 생겼다. 장터 폐장 후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고, 수익성을 염두에 둔 전문상인의 노점판매가 벌어졌다. 노점판매로 인해 먹을거리나 물품은 더 풍부해졌을지 몰라도 소박하고 투박했던 마을축제의 이미지는 퇴색되는 듯 했다. 이 때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서 질서유지를 돕고 참여자 스스로 쓰레기를 정리하도록 독려했다. 주류 판매를 자제하고 가족단위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전문상인 유입억제를 위한 홍보에 열의를 띠었다.

장터는 폐장 후에도 깨끗했으며,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한 벼룩시장은 투박하지만 순수한 마을축제라는 정체성을 확보했다.

장터기금으로 물 부족 국가인 필리핀에 식수용 펌프 설치해줘

'얼마요?' 로 시작하는 흥정에서는 예뻐서, 착하니까, 이웃을 핑계로 단가가 내려간다. 여기에 이견 팔아서 남을 돕자며 값을 높여 모은 십시일반 성금은 허를 내두를 만한 좋은 일에 쓰인다. 쌍문1동 사례다. 이곳에선 운영 수익을 모아 지역 내 다문화친구 고향(필리핀)의 물 펌프를 설치하는 데 쓰였다. 마을대표가 지역주민의 성금을 포함하여 직접 다문화친구 고향을 동행방문, 마을 학생들에게 학용품도 전달하고 3곳에 식수용 펌프를 설치해 준 것이다.

이렇듯 각 동 벼룩시장의 수익금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마을공동체 사업, 복지취약계층 지원에 전용되었고, 스스로의 성공을 경험한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더 많은 참여자, 더 많은 자원봉사자로 확대되었다.

▶ 활동 중인 사람들, 여기 모여봐~

4989 벼룩시장.

4989 벼룩시장
 각산에게 필요 없지만 남들에게는 필요 있는 물건을 주만하면 적당 할고 사는 장터입니다.
 내의 액셀러레이터가 누군가의 리얼라이즈에 뛰어드는 기차. 함께 액셀 본개서는 지금 신청하세요!!

- ▶ **장터 예쁜 날** : 배설, 폐해물포집 11:00 ~ 15:00 (연준님, 주준님, 비호은님 합석)
- ▶ **장터 예쁜 곳** : 서울 노원구원 (송파로에서 죽전역에서 가는 길 중간)
- ▶ **장터 하일 곳** : 도봉구 죽전 후구다 (사천시 시장이 대안장~)
 ※ 위치한 시동은 반드시 보호자도 동반해야 합니다.
- ▶ **장터비밀** : 참여신청서를 주면됩니다
- ▶ **판매상품** : 다시 사용 가능한 모든 물건 (의류, 신발, 가방, 책, 음반, 도자기 등)
 음식물, 동물, 위험한 물건, 상인용품, 불법 복제물은 안됩니다.
- ▶ **판매방법** : 본부신청서 필자와 면담을 반드시 다음
 주னி 준비한 등리(2mX2m)에 올린 장별 후 판매됩니다.
- ▶ **준비물** : 판매이어서 잘 거, 먹을 거 모두 (돈자리, 등, 간식이나 도시락, 양산이나 선풍 등)
- ▶ **참가비** : 없음 (간접 판매수익의 일부를 자선기부회 등 지원 자선을 위해 쓰입니다)
- ▶ **문의** : 반쌍1동 주민센터 ☎ 02.2091.5604 (담당 권희연)

○ 판매 참가자께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장터는 날짜 또는 행사일 사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력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양해 바랍니다.

벼룩시장
 장터는 영리보다 이웃을 연결하는 장터입니다.
 벼룩시장에서는 장터일일 전까지
 장터의 수익금과 자선금 등 모두 자선금으로 사용됩니다.

주최하는 기관/단체 : ▶ 쌍문1동 주민센터, ▶ 쌍문1동 주민자치위원회,

2014. 쌍문1동 제1회 호자마을 음악회 & 장터한마당

일시 2014. 10. 25. (토) 11:00 ~ 16:00
음악회 ▶ 13:00 ~ 15:00

장소 쌍문초등학교

- 행사내용 -

- 하나, 음악회**
 - 가수 유상록 공연, 난타, 밸리댄스, 댄스퍼포, 마술, 태권도 격파
- 두울, 벼룩시장(선착순 50명)**
 - 1365 자원봉사 포털 접수 또는 동 주민센터 접수 (☎02-2091-5500)
 - 현장접수가능
- 세) 옛, 체험마당**
 -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화인형 만들기, 만생리대 만들기, 풍선아트, 한지 일기장, 가을 씨주기 등 12개 체험
- 네) 옛, 먹거리마당**
 - 전지국수, 떡볶이, 오징, 부침개 등

쌍문1동 주민자치·직능단체협의회 & 쌍문1동 주민센터

벼룩시장 홍보 안내문

평가와 과제

2013년 처음 시작한 ‘릴레이 베품시장’의 성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총 28회 개최에 3만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 운영수익만 1,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다소의 편차는 있어도 보통 각 동별 베품장터에 2~3천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로 인해 선관위의 지도로 기간 중 베품장터 개최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총 24회 2만여 명의 주민 참여라는 눈부신 성취에 주민 스스로 놀라고 기뻐했다.

2015년에도 진화된 형태의 릴레이 베품시장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창동역 문화마당에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매월 1회 ‘희망 장터’가 개설되고 있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로 변모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라 한들 일회성에 그친다면 금세 잊혀질 것이다. 예산도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봉구는 직접적 지원이 아닌 행정의 서포터즈 역할에 충실했다.

민간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정부 및 지자체, 기업 등의 공모 사업에 지원하도록 정보를 주고 지원하게 함으로써 공모 시상금을 추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참여를 통한 재미와 나눔을 통한 기쁨을 공유하며 마을에 애정을 갖고 내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협력부서(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청소과, 교통지도과 등)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인단체 협조를 통해 물품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베품시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역할분담과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가며 조직적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행정기관에서 기획하고 주민은 그저 방문객으로 참여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2015년 도봉구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고 행정계획의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릴레이 벼룩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총에너지 소비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주민제안건수, 마을형 문화공간 수, 공유사업 주민참여 수 등 환경·사회문화·경제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모델이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연차적 관리를 통해 '벼룩시장'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바로미터가 됨은 물론 더 많은 지속가능발전 사업 태동의 바람직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벼룩시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2015년도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지표〉

환경지표	사회문화지표	경제지표
1. 온실가스(CO ₂)배출량	1.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1. 지역기업 수
2. 자연재해 인명피해	2. 평생교육 참여율	2. 고용률
3. 총 에너지 소비량	3. 노인취업률	3. 청년 고용률
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4. 주민제안건수	4. 사회적 경제기업 수
5.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 교통사고 사망자 수	5.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비율
6. 미세먼지 농도	6. 건강기대수명	6. 공유사업 주민참여 수
7. 1인당 공원면적	7. 마을형 문화공간 수	7. 전통시장 이용객 수

장터가 갖는 '광장성', 사람들 '소통' 에 눈뜨다!

지금 주말이면 도봉구 곳곳에 벼룩장터가 선다. 무엇이 이런 장터를 만들어낸 것일까? '공동체'가 살아있지 않고는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회색빛 도시에서 눈을 들면 빼곡한 아파트가 먼저 보이는 일상의 한가운데, 우리는 잊고 지내던 이웃을 발견하게 됐다. 장터가 갖는 '광장성'은 사람들의 모임을 용이하게 했다. 거기에 배제된 세대란 없다. 남녀노소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 물건을 교환하며 공통의 주제를 발견했고 거래보다는 '소통'에 눈을 떴다. 아이들은 이웃과 가족 가운데서 삶을 배운다. 흙을 조물거리는 고사리 손은 커서 '환경'을 얘기할 것이다. 덤으로 받아든 빈대떡 한 접시에 어르신은 존중을 읽었고, 아무진 아주머니 손엔 황재한 것 같은 물건



창2동 에코! 벚꽃축제 & 행복나눔장터

흥날리는 꽃잎의 아름다움, 벚꽃이 주는 설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수준은 노래와 앞집 아이의 역동적인 울돌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인심 좋은 창터까지 거닐수록 행복이 피어나는 창2동 에코! 벚꽃축제에 초대합니다.

일시 4. 4 (토) 10:00~17:00
 •개장식 4. 4 (토) 13:00
 •차없는 거리 교통 통제 4. 4 (토) 06:00~18:00

장소 우이천로 (창동 태영데시앙아파트 ~ 건영아파트 앞 인접도로)

내용

- 공원마당 (식전공연, 축하공연, 티브로드 서울스타 주민노래자랑), 친환경체험마당
- 도농직거래장터, 장난감 물물 교환장터, 행복나눔장터 (벼룩시장), 그림 전시마당
- ※ 장난감물물교환장터, 벼룩시장, 행사지원 및 재능기부 접수 (1365-나눔포털)

주최 창2동벚꽃축제추진위원회





서울 스타 (주민노래자랑) 예심 안내

일시 4. 1. (수) 14:00

장소 창2동주민센터 2층 대강당

차역 도봉구민 누구나

창2동 주민센터 ☎ 2091-5704

이 쥐어져 있다. 아니 이웃에 홀몸어르신이 요즘 많이 불편하
시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한다. 우리가 바라던 공동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이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릴레이 베품시장'

도봉구의 '릴레이 베품장터' 는 이런 일상성에 주목한다. 앞
에서 전제했듯이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성장-복지' 라는 선순
환 체계가 그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물품의 재활용을
통한 착한소비문화가 확산되고 그것은 나눔의 문화로 이어졌
다. 민간의 거버넌스 기제가 발현되며 자발성에 근거한 확장력
을 갖게 되었고 '착한 변화' 는 바이러스처럼 유행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 되어 버린 '릴레이
베품시장', 거창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모두' 가 함께여서 행복
했다면 그 일상성의 가치는 주목받아야 한다. 이런 소박한 성
취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의 지속가능발전으로 이어질 때, 또
다른 유형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쌓여 가면 지금과 미래
세대의 발전적 공존이 기약될 것이다.



2014. 4. 15. 쌍문1동 베품시장 수익금과 민간후원금으로 필리핀 산타크루즈에 위치한 <Masico Elementary School> 및 인근 마을에 우물파주기 사업 시행.



완성된 우물의 모습, 쌍문1동 주민센터 글자가 새겨져 있다.